

# 텍스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安樂國太子傳」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황 선 업

## 1. 분석 관점 및 자료

### 1.1. 텍스트 생산자 중심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텍스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 텍스트 수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 텍스트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는 주로 텍스트 수용자의 입장, 즉 텍스트 연구자의(혹은 독자로서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과 텍스트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텍스트 생산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연구가 적었던 것은, 생산자 중심의 연구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심리적인 요소가 개입되므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인간의 언어사용을 보다 정확히 분석·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생산자가 그 텍스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와 의지가 어떻게 텍스트 속에

---

\* 이 글은 1993년도 1학기에 개설되었던 '국어화용론'의 기말 보고서로 작성했던 것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에 텍스트학회에서 발표한 후 다시 손을 본 것이다.

들어가는지를 『월인석보』 권8 끝 부분에 있는 「安樂國太子傳」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연구는 정진원(1993)에서 특히 강조되었는데<sup>1)</sup>, 이 글도 정진원(1993)과 그 체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 1.2. 분석 자료에 대하여

「안락국태자전」이 실려 있는 『월인석보』는 너무나 잘 알려진 문헌이기에 문헌의 성격, 간행 경위 및 자세한 서지 사항들은 생략하고 권8의 이본들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권8은 대개 권7과 합책되어 있다. 먼저 초간본으로는 동국대 소장본의 것이 있고(홍문각에서 영인본이 나왔음) 이것의 복각본이 선조 5년(1572)에 豊基 毘盧寺에서 나왔는데 이도 역시 동국대 소장본이다<sup>2)</sup>. 이 복각본의 후쇄본인 安東 中臺본(1607)을 저본으로 한 청사진본이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대제각에서 영인한 국립도서관본이라는 것도 아마 이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상의 책들이 모두 권7-8의 합책인데 비해 초간본이거나 초간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 
- 1) 정진원(1993)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종래의 연구에서 텍스트 생산자에 대한 명칭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화자계열(말할이, 설화자, 화자, 소설의 서술자)과 작가계열(집필자, 편찬자, 글쓴 사람, 텍스트 생산자, 작가)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써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실제로 화자로서의 작가, 화자·글쓴 사람과 같은 용어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둘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현대문학 작품들을 고려한다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함을 느낀다. 우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용어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 둘이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써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이런 문제들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례들을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라 생각되는 텍스트 생산자(이하 '생산자'로 약칭)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 2) 초간본에는 권말에 총장수가 없는데 비해 복각본 권7에는 '摠八十張', 권8에는 '摠百四張'과 같이 그 권의 총장수가 들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대해 안병희(1992)에서는 이 초간본이 세조시의 인출본이 아닌 연산군 때의 후쇄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홍윤표 소장본은 권8만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 글에서 참고한 것은 초간본인 홍문각 영인본과 홍윤표 소장본이고, 부분적으로는 북각후쇄본인 대제각 영인본도 참고하였다.

『안락국태자전』은 『월인석보』 권8의 77ㄱ면에서 103ㄴ면까지에 실려 있다. 그 중 77ㄱ면에서 89ㄴ면까지는 「월인천강지곡」(이하 「월곡」으로 약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曲次 220-250), 89ㄴ면에서 103ㄴ면까지는 「석보상절」 부분이다. 이 글에서 이 두 부분에 나타나는 차이점도 간략히 다루기는 하겠지만 분석의 주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석보상절」 부분이다. 따라서 이하 「안락국태자전」이라는 것은 주로 석보상절부를 말한다.

그런데 이 「안락국태자전」 부분이 『월인석보』의 다른 부분과는 그 형식이 특이하게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즉, 『월인석보』의 다른 부분에서는 「월곡」이 나오고 그에 대한 주석의 성격으로 「석보상절」이 한 간씩 낮추어 大字로 씌어져 있는 데 비해 이 부분은 「월곡」 뒤에 「석보상절」이 나와야 할 자리에 「석보상절」이 없이 협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형식만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 협주 부분이 「석보상절」에 해당한다. 그리고 협주처럼 보이는 「석보상절」 내용에 대한 협주는 그보다 한 간 낮추어서(즉 「월곡」보다 두 간이 낮게) 역시 쌍행으로 적혀 있다. 일반 형식과 어긋나는 특이한 구성은 권2의 49ㄴ면에서부터 그 권의 끝까지에도 나타나며<sup>3)</sup>, 다른 부분에서도 가끔 보이는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왜 그런 구성이 나타나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권8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책략을 쓴 것(이도 생산자의 의도라면 의도라 할 수 있겠다)이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sup>4)</sup>.

3) 이 부분은 석보상절부보다 한 간 더 낮게 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석보상절부와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협주의 양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석보상절부에서도 가끔 눈에 띄는 현상이다.

4) 실제로 권8은 104장이어서 다른 권들에 비해 장수가 많은 편이다. 물론 권21의 경우처럼 200장을 넘는 예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한 권이 100장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 하겠다. 참고로 다른 권들의 장수를 살펴보면 권21 이후를 제외하고 현전하는 12권 중 100장을 넘는 것은 권8, 권10(122장), 권11(130장)의 세 권뿐이다.

## 2. 분석 방법

### 2.1. 화제와 화제 단락

텍스트 분석의 단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 연구자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단위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주로 쓰이던 단위 설정 방법은 주로 문장 종결법에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비교적 유용하나 중세 국어와 같이 긴 문장이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진원(1993)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화제와 화제단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어떤 설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화제와 화제 단락이라는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화제라는 것의 개념이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화제를 나누는 일차적 기준으로 동작주와 행위라는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다. 대개의 행위에는 동작주가 나타나므로 그 동작주의 변화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문장의 연결 및 종결과도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글의 서술 관점인 생산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가 어떤 설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표현할 때 그는 대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개별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그 개별적 행위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짜여져 텍스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실제로 「안락국태자전」을 화제와 화제 단락으로 나눌 때 동작주의 바뀔이라는 원리적인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부차적인 기준들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5) 정진원(1993)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첫째, 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길지라도 하나의 화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긴 대화를, 그 속의 동작주가 바뀔 때 따라 다시 하위 단위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행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 화제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 50, 80, 92번이 각기 한 화제가 된다. 따라서 각 화제는 그 길이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둘째, 동작주의 바뀔 때 명시되지 않았으나 의미상 분명히 동작주가 바뀐 경우는 별개의 화제로 본다. 아래의 (1)이 바로 그러한 예로 '40→41: 長者→사롭(중)', '69→70: 安樂國→중'의 동작주 바뀔 때 있으나 문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 7. 40. 長者 | 듣고 사롭 브려 '보라' 하니  
 41. 날오티 "門 알피 혼 중과 혼 쇼쾌 고본 거지블 드려 왜서 푸  
 닌이다"  
 69. 安樂國이 바미 逃亡하야 돈다가 그 짓 술 밭 조을 맞나니  
 70. 자바 구지조티 "네 잇데 항것 背叛하야 가는다" 하고 스초로  
 두 소놀 미야 와 長者 | 손티 넘어늘

셋째, 동작주의 바뀔 때 한 인물의 행위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동작주는 같으나 그 동작주의 행위가 연속성이나 인과성이 거의 없이 바뀌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의 변화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화제를 나눌 수 있다. 이 기준과 관련되어 화제를 나눈 예는 다음과 같다.

- (2) 7. 55. 王이 夫人스 브들 어엿비 너기샤 니르샤티 "아드러 나거든  
 安樂國이라 하고 풀웃 나거든 孝養이라 호쇼셔" 말 다호시고  
 술하디여 우러 여회시니  
 56. 王이 比丘와 호샤 林淨寺에 가신대  
 93. 안락국이 듣고 菩提樹 미티 가 보니 삼동 내 버혀 더멧거늘  
 주서다가 次第로 니서 노코 짜해 업테여 그올며 술하디여 우  
 니 하눌히 드러치더니  
 94. 오라거늘 니러 西스녁 向하야 合掌하야 靑을 썩리고 하눌 브  
 르며 偶를 지서 블로티 "願我...安樂刹"

(2ㄱ)은 동작주가 모두 ‘王’이지만 행위, 장소, 시간의 변화가 개재해 있어 두 개의 화제로 나눈 것이다. 56에서 앞 화제와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王’이 다시 쓰여 있는 것도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화제라 할 수 있는 방증이 된다. 한편 (2ㄴ)의 94에는 다시 동작주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93과 그 동작주가 같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도 (2ㄱ)과 마찬가지로 두 화제 사이에 시간과 행위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연속적 인과관계가 적기 때문에 둘로 나누었다<sup>6)</sup>. 또한 72-76도 안락국의 행위가 이어지며 동작주가 모두 안락국이지만 그 행위가 바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경계로 화제를 나누었다.

이상의 화제를 나누는 원리적 기준과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기준 세 가지<sup>7)</sup>를 고려해서 「안락국태자전」을 12개 화제 단락<sup>8)</sup>에 98개의 화제로 나누

- 6) 이 두 화제는 연결어미 ‘-니’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중세국어의 ‘-니’는 현대국어 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녔고 따라서 더 넓은 분포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고영근(1987)에서는 ‘-니’를 설명, 이유, 원인의 어미로 분류하고 설명과 이유로 쓰인 예를 각기 하나씩 들고 있는데(p. 321),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유보다는 설명을 나타내는 데 더 많이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안락국태자전에서 대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24개의 ‘-니’가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화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8개, 화제 경계에 쓰인 것이 16개이다. 이 중 후자는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이유·원인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아서 86, 90에 나타나는 것 정도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뿐이고 대개는 설명의 용법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니’의 선후문장 연결관계가 현대국어만큼 긴밀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연결어미 ‘-니’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현희(1992)를 참조할 수 있다.

이은경(1990)에서는 ‘-으니(까)’의 의미를 이유·원인과 설명으로 나누고 그 두 용법에 있어 통사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유·원인→설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았는데 아마 위에서 보인 ‘-니’의 용법을 고려한다면 통사적으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세국어의 연결어미들의 의미 및 통사적 특징에 대한 좀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7) 실제로 정진원(1993)에 제시된 텍스트를 필자의 이러한 기준으로 나눌 때 정진원(1993)에서 행한 화제 구분과 두어 개 정도(11, 25)의 화제에서만

어 보았다(이에 대하여는 뒤의 부록 참고). 그러나 이런 기준은 아직 정밀하지 못한 것이어서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2.2.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이 글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경어법을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 보려한다. 하나는 텍스트 속의 인물간의 관계(이하 내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속의 인물과 생산자와의 관계(이하 외적 관계)이다.

(3) ㄱ. 15. 그저귀 光有聖人이 勝熱婆羅門比丘드려 무르샤되 “沙羅樹王이 八婁女 보낼 나래 앓가본 브디 업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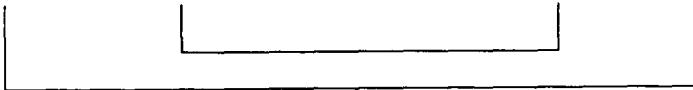
16. 對答호수보되 “大王이 앓가본 브디 곧 업더시이다”

ㄴ. 1. 네 梵摩羅國 林淨寺애 光有聖人이 五百弟子 드려 겨샤 大乘小乘法을 니르샤 衆生을 教化호더시니 그 數 몬내 헤리러라

(3ㄱ)에서 15의 ‘업더녀’와 16의 ‘업더시이다’는 각기 제자와 스승이라는 내적 관계에 의해서 쓰인 것이고, (3ㄴ)의 ‘겨샤, 니르샤, 教化호더시니’는 생산자와 텍스트 속의 인물(光有聖人)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15를 화자와 청자, 주체라는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생산자:화)··(광유성인:화,주)··(사라수왕:주)··(승열바라문:청,객)··(독자<sup>9</sup>:청)



차이를 볼 수 있으므로 그곳의 기준도 이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 8) 필자는 아직 화제 단락을 나누는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화의 내용 전개에 따라 임의적으로 나누어 보는 데 그쳤다. 앞으로 더 확고하고 엄격한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 9) 생산자가 어떠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 텍스트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생산자와 광유성인, 사라수왕, 승열바라문 간의 관계는 외적 관계이고 광유성인, 사라수왕, 승열바라문 간의 관계는 내적인 것이 된다. 이 때 광유성인은 내적 관계에서는 화자이지만 외적 관계에서는 주체이고 승열바라문은 내적 관계에서는 청자, 외적 관계에서는 객체가 된다. 물론 내적 관계라는 것도 생산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외적 관계와 같지만 경어법을 다루는 데 있어 이 두 관계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10)</sup>.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내적 관계, 외적 관계와 경어법

생산자가 텍스트의 구성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우리는 경어법의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경어법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어법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자이기 때문이다<sup>11)</sup>. 이 글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어법에 대해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다.

우선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체높임법을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지문에 나타나는 것과 대화에 나타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지문에 나타나는 것은 생산자가 텍스트 내부 인물의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대화 속에서 보이는 것은 내부 인물 간의 관계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에 쓰이는 주체높임은 외적 관계, 대화에 쓰이는 것은 내적 관계를 반영한다.

10) 만약에 광유성인의 말 속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다시 외적 관계와 내적 관계가 설정될 것이다. 가령 80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생산자: 화(채녀: 화, 주(부인: 화, 주→대왕: 청, 객)안락국: 청, 객)독자: 청)

11) 정진원(1993)에 언급되었듯이 원 경전의 생산자와 석보상절의 생산자가 구분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글에서 그런 작업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석보상절의 생산자가 그 이전 경전 생산자들의 의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아, 「안락국태자전」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을 최종 생산자(세조든 김수온이든)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안락국태자전」에 나타나는 외적 관계의 주체높임법 중 생산자의 의식을 잘 드러내주는 한 예가 있다. 「석보상절」의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에 대해서도 주체높임법을 쓰지 않는 데 비해<sup>12)</sup> 「안락국태자전」에서는 沙羅樹王에 대해서 생산자가 항상 주체높임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왕의 신분이 설화의 뒤에 나오듯이 아미타불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안락국태자전」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각 인물의 신분은 텍스트 전체에 걸쳐 생산자의 진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생산자가 일관되게 존대를 하고 있는 인물은 광유성인과 사라수왕으로 이들은 각기 석가모니,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그러나 보살인 원앙부인(관세음보살), 안락국(대세지보살), 승열바라문(문수보살)에게는 ‘-시-’를 쓰지 않는 점이 대비된다. 아마 부처와 보살을 엄격히 구분하여 대우를 한다는 생산자의 의식에 의해 외적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sup>13)</sup>.

한편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빗어지는, 겉으로 보기에 는 경어법상 모순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 (4) 44. 長者 | 鴛鴦夫人을 다시 보니 상넷 사르미 양지 아닐척 夫人의 무로티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45. 對答호티 “眞實로 울흐니이다”

(4)에서 텍스트 내적인 관계로 볼 때 長者가 過客의 중에 지나지 않는 원앙부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44의 질문에서와 같이 장자는 부인에 대해 전혀 존대를 하고 있지 않다. 또 45에서는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써서 부인이 장자에게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

12) 석보상절 권6의 26ㄴ면에서 舍衛國 波斯匿王에 대해 ‘王이 須達이 불러 닐오디’와 같이 주체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3) 월곡부에서는 석보상절부와 달리 원앙부인, 안락국, 승열바라문 심지어는 팔채녀(팔대보살)에게까지 주체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생산자들의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운문과 산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오히려 주체높임의 생략이 일어난다면 산문보다는 운문 쪽이어야 할 것 같으므로 단지 생산자의 개성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에서는 부인은 높임의 대상이 되지만(관세음보살의 화신이므로) 오히려 장자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44의 대화가 아닌 지문 부분에서는 ‘長子 | … 夫人의 무로디’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sup>14)</sup>. 이것은 잘못 보면 장자가 부인을 높이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자가 볼 때 부인이 장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지문 부분에서는 내적 관계보다는 외적 관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장자와 사라스왕의 사이에도 역시 똑같은 관계가 설정된다(예: 42, 43). 이런 예들에 대해서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나누어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중 어느 것이 나타난 것인지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술보디’와 같이 지문 부분에 나타나는 설화동사<sup>15)</sup>가 그러한 예이다.

- (5) ㄱ. 須達이 짓거 太子의 가 술보디 “이 東山올 사아 如來 위호수 바 精舍를 이루수바지이다” (석보상절 권6, 24ㄱ)  
 ㄴ. 오직 魔王이 世尊의 술보디 “瞿曇아 나는 一切 衆生이 다 부테 드의야 衆生이 업거사 菩提心을 發호리라” 허더라 (석보상절 권6, 46ㄴ)

위의 (5ㄱ)에서 태자는 수달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만 생산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sup>16)</sup> 지문에 쓰인 ‘술보디’는 내적 관계에 의해 쓰인 것으로, 그러나 (5ㄴ)에서는 魔王이 世尊에게 ‘瞿曇아, 發호리라’와 같이 ‘허라’체를 쓰고 있음을 보아 ‘술보디’는 생산자가 世尊에 대해 사용한 것, 즉 외적 관계에 의해 쓰인 것으로 각기 달리 파악된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같은 위치의 같은 단어가 경우에 따라 내적 기능과

14) 이와 같은 경우가 정진원(1993)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다.

15) 이도 정진원(1993)에서 사용된 용어로 ‘니르다, 솨다’ 등의 동사를 말한다. 한편 행위참여자의 화제 정보를 설화하는 ‘허다’는 인용동사라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16) 실제로 이 須達의 말 뒤에 나오는 太子가 말하는 것에 생산자는 ‘太子 | 널오디’와 같이 주체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외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객체 높임의 '-습-'이 주체와 객체 사이만의 높임 관계를 나타내는가, 화자와 객체의 높임 관계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sup>17)</sup> 필자가 생각하는 간단한 결론만을 제시하고 「안락국태자전」의 예를 검토하는 정도로 만족하려 한다.

‘술보티’와 ‘-습-’은<sup>18)</sup> 기본적으로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화자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비교적 고정적이고 수동적 요소라면 화자와 객체의 관계는 가변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 하겠다. 화자가 ‘-습-’의 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김동식(1984)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습-’의 사용이 통사적이 아닌 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의해 달라지는 화용적인 것이기 때문에<sup>19)</sup> 가변적이다. 따라서 ‘-습-’이나 ‘술보티’가 그 사용에 있어 다양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글의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술보티’나 ‘-습-’은 내적 관계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 외적 관계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때 외적 관계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외적 관계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지문부에만 나타나는 ‘술보티’가<sup>20)</sup> 지문이나 대화 어느 곳이나 나타날 수 있는 ‘-습-’보다 사용의 양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sup>21)</sup>. 또한 화자가 높히려는 의도를 앞세우는 경우에 주체가 객체보다

17) 자세한 내용은 김충희(1990)을 참조.

18) 이 둘이 모두 객체높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객체높임범이라 할 때는 ‘-습-’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19) 필자는 모든 경어법이 통사적이기보다는 화용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경어법 연구는 문장론 중심의 통사론적 접근보다는 화용적인 측면 내지는 텍스트 전반에 대한 고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0) ‘술보티’가 80과 같이 대화 속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도 ‘술보티’ 뒤에 나타나는 대화 부분에 대한 지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문부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낮다는 비교적 고정적인 기본 기준조차도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외적 관계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6) 7. 57. 光有聖人이 보시고 그장 깃그샤 즉자히 金纏子 들흔 받주바  
 찾물 길이습더시니

나. 24. 比丘 | 對答 曷수보되 “大王하 엇더 나물 모루시느니잇고 아래 八姪女 만주바 梵摩羅國 林淨寺로 가수본 내로니 八姪女의 기본 찾드리 모즈랄키 聖人이 또 나물 브리샤 大王모물 講曷수바 오나돈 찾물 기를 維那를 삼수보리라 曷실키 다시 오수보이다”

위의 예들은 명백히 주체가 객체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습-’이 쓰이고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그 성격은 약간 다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67)은 기본 조건인 주어와 객체의 관계보다 높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여 다소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sup>20)</sup> (6나)는 간접인용 구문으로 파악한다면 비구의 입장에서 왕에 대해 충분히 ‘-습-’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67)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습보되’나 ‘-습-’처럼 내적 관계에 외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자가 그 텍스트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안락국태자전」에서의 예를 더 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원양부인과 승열바라문 사이의 대화들을 살펴보자.

21) 정진원(1993)에서는 한문 원전에 ‘白’과 ‘曰’을 각기 ‘습보되’와 ‘닐오되’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둘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은 이들이 화용적이며 또 이 화용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외적 관계와 관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22) 지문부이므로 외적 관계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23) 앞의 (5나)도 마왕이 세존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산자의 높이려는 의도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다 하겠다.

- (7) ㄱ. 7. 比丘 | 숯보티 “나는 齋米를 求하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  
수<sup>ㅅ</sup>라 오이다”  
 21. 比丘 | 숯보티 “나는 齋米를 어드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  
수<sup>ㅅ</sup>라 오이다”  
 ㄴ. 28. 鴛鴦夫人이 들좁고 比丘의 닐오티 “내몸도 좃즈바 값 짜힌가  
물 값 짜힌가”  
 ㄷ. 29. 比丘 | 닐오티 “아래 가신 八姪女도 니거시니 므스기 썰브리  
잇고”  
 30. 夫人이 닐오티 “그러커든 나도 王 뵈수바 比丘 좃즈바 가리  
이다”  
 ㄹ. 33. 鴛鴦夫人이 울며 比丘의 닐오티 “王과 중남과는 … 길홀 문  
너리로소이다 이 짜히 어드메잇고”  
 34. 比丘 | 닐오티 “이 짜히 竹林園이라 혼 나라히이다”  
 35. 夫人이 또 무로티 “이어괴 갓가비 사루릭 지비 잇누니잇가”  
 36. 比丘 | 닐오티 “오직 이 부래 子賢長者 | 지비 잇다 들노이  
다”

(7ㄱ)은 비구가 부인에게 왕궁에 두 차례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인데 지문에서는 ‘숯보티’가, 대화에서는 상대존대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부인은 비구에 대해서 (7ㄴ)과 같이 ‘하라’체를 쓰고 있고 지문에서도 ‘닐오티’로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부인보다 높게 설정된 왕조차 비구에게 상대존대를 쓰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왕은 항상 좋은 根源을 닦아 無上道를 구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가한 승려를 높이 대우하지만 원앙부인은 일국의 왕비로서 일개 승려에 불과한 승열바라문에게 하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 비구에 대한 두 사람의 각기 다른 태도를 통해 그만큼 왕의 정성을 잘 표현하려는 생산자의 배려일 것이다.

그런데 (7ㄷ)을 보면 비구가 부인에게 말하는 장면에는 이전까지 쓰이던 ‘숯보티’가 ‘닐오티’로 대체되고, 부인은 비구에게 상대존대를 쓰는 것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30은 부인이 비구에게가 아니라 왕에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7ㄹ)에서 보이듯이 이후로는 계속 이와 같이 부인이 비구에게 상대존대법을 써서 말하고, 서로에게 ‘닐

오디'가 쓰이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어떤 내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부인이 이미 출가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비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비구와 대등한 관계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산자가 생각하여(외적 관계의 개입으로) 내적 관계를 재설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 하나의 예는 안락국과 팔채녀 사이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 (8) 81. 安樂國이 무로디 “沙羅樹大王이 어찌 겨시오”  
82. 對答호디 “길혜 물 기러 오시느니라”

종의 신분이고 일곱 살 먹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안락국이 자신이 비록 태자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어머니뻘되는 여자에게 ‘호라’체를 쓴다는 것은 텍스트 내적 관계에서는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도 생산자가 이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보살이라거나, 안락국의 태자라는 신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즉 외적 관계의 고려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해도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가 모두 고려되는 ‘-습-’과 달리 흔히 존칭의 속격 표지라고 하는 ‘-스’은 외적 관계와만 관련이 되는 것 같다.

- (9) 5. 王이 드르시오 四百八夫人스 中에 第一鸞鷲夫人을 브리샤 ‘齋米 받주브라’ 호야시놀  
17. 聖人이 니르샤디 “그리커든 다시 가 大王스 모뭇 請호야 오라 찰물 기를 維那를 사모리라” 호야시놀

(9)의 5는 지문에서 동작주가 더 높음에도 ‘-스’이 쓰인 예이고 17은 화자가 더 높음에도 대화 속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 ‘-스’이 쓰인 예이다<sup>24)</sup>.

24) 이 ‘-스’의 정확한 기능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음운론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4. 생산자와 어휘 등가성<sup>25)</sup>

텍스트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어휘의 등가성은 이전의 많은 논문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등가적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려한다.

먼저 사라수대왕에 관한 것을 보면 2에서 ‘沙羅樹大王’이라 소개된 후 지문에서는 王으로 대화에서는 大王으로 주로 제시되어 있다. 가끔은 沙羅樹王으로도 나타나나 그 예가 적다. 대화에서 대왕으로 쓰이는 것은 그를 지칭하는 사람이 대개 아랫사람들인 까닭에 왕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이고 지문에서 그냥 왕이라 한 것은 반복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가능한 한 제거하려는 생산자의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sup>26)</sup>.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勝熱婆羅門의 경우인데 3에서 제시된 이후는 지문이나 대화에서 대개 比丘로 지칭되고 있다. 대화에서 높여 쓸 만한 말과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비구로 그 반복성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원앙부인의 경우 부인과 비구의 경어법이 바뀌는 30까지는 駕齋夫人이 주로 쓰이다가 그 이후는 주로 夫人으로 쓰이게 된다. 이는 아마 궁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부인의 이름이 비록 거론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부인과 혼동의 염려가 있어(실제로 사라수왕에게는 408 명의 부인이 있다) 원앙부인이라 쓰고 출가한 후에는 혼동의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인으로 쓴 듯하다. 이와 같은 근거로는 출가 전일지라도 문맥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22와 같은 곳에 부인이 사용되었고, 59에서와 같이 출가 후라도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원앙부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락국에 대한 등가적 어휘를 보겠다. 안락국에 대해서는

25) 여기서는 의미상의 등가와 기능상의 등가를 구분하지 않았다.

26) 정진원(1993)에서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짧게도 길게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원 경전에서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 글에서는 한문 경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安樂國, 太子, 아기 등이 쓰이고 있다. 이 중 안락국이 가장 무표적인 것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며, 아기는 그 어휘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리다는 것이 강조되거나 상대방이 안락국에 대해 잘 모를 때 그 외양적 특징을 통해 파악된 명칭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61, 63에서는 안락국이 자신의 출생과 아버지에 관해 모르는 상태라 아기라 칭해졌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관해 말해 준 다음부터는 安樂國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이름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왕이 부인과 이별할 때 지어 준 이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 생산자는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기란 말이 84에 다시 나오는데 이는 왕이 아직 안락국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기 엇더니완디 늘그니 허뵐 안고 이리드록 우는다'라고 물을 때 사용된 것으로 왕이 단순한 외형적 모습만으로 지칭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태자라는 명칭은 왕과 상면한 이후에 나온다. 이는 왕과의 만남을 통해 이전의 종이던 신분이 태자로 바뀌게 됨을 생산자가 강조한 때문으로 보인다. 안락국이 왕과 이별하고 竹林國에 들어가 소 치는 아이와 대화할 때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안락국이라 칭해지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텍스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의 분석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안락국태자전」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관점과 그 필요성, 그리고 『월인석보』 권8의 이본 및 「안락국태자전」의 형식적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였으며, 2장에서는 이 글을 끌어가기 위해 상정한 기본 개념들을 살폈다. 행위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나누는 화제라는 단위의 도입과 그 설정 기준, 텍스트 내적인 관계와 외적인 관계의 구분이 그것이다. 3장부터는 본론 부분으로, 2장에서 설정한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경어법의 사용용 3장에서, 어휘의 동가성에 생산자의 의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4장에서 각기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앞서 주 1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생산자들이 다르게 본 요소의 비교나 흔히 회상법 선어말어미라고 불리는 '-더-'의 특수한 기능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으나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너무 산만한 글이 되고 말았다. 또한 아직 생산자 중심의 연구라는 것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나 실제 예를 선택함에 많은 미숙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도 느끼며 다만 앞으로 텍스트 연구에 있어 생산자적 입장을 고려한 연구가 문헌자료인 중세나 근대 국어를 다루는 여러 측면에서 효용성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 참고논저

- 고니시 도시오(1992ㄱ), 「목련전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국어연구』 107.  
 고니시 도시오(1992ㄴ), 「언어표현에 있어서의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관계」, 『국어학논집』 1, 태동문화사.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5.  
 고영근(1993),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김동식(1984), 「객체높임법의 '습'에 대한 검토」, 『관악어문연구』 9.  
 김충희(1990), 「겸양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안병희(1993), 「월인석보의 편간과 이본」, 『진단학보』 75.  
 윤석민(1989), 「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시론」, 『국어연구』 92.  
 이은경(1990),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국어연구』 97.  
 이현희(1992), 「15세기 국어구문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정진원(1993), 「석보상절6의 설화자 화법」, 텍스트연구회 발표문.  
 천혜봉(1984), 「月印釋譜 卷第七·八 解題」, 『월인석보 권7·8』, 흥문각.

## - 부 록 -

## \* 「安樂國太子傳」 일인석보 권8 89면-103면 \*

(가) 서두: 光有聖人の 소개.

1. 네 梵摩羅國 林淨寺에 光有聖인이 五百弟子 두려 겨샤 大乘小乘法을  
니르샤 衆生을 教化하더시니 그 數 묻내 헤리러라

(나) 光有聖인이 沙羅樹大王에게 채너를 청함.

2. 그 때 西天國 沙羅樹大王이 四百小國 거느려 겨샤 정헌 法으로 다스리  
더시니 王位를 맞드디 아니하샤 妻眷이며 子息이며 보빅를 食디 아니  
하시고 상네 도헌 根源을 닷그샤 無上道를 求하더시니
3. 光有聖인이 沙羅樹大王이 善心을 드르시고 弟子 勝熱婆羅門比丘를 보  
내샤 ‘찾물 기를 姝女를 비러 오라’ 하야시늘
4. 比丘ㅣ 王宮의 와 뵈헤 드러 錫杖을 후는대
5. 王이 드르시고 四百八夫人스 中에 第一鴛鴦夫人을 브리샤 ‘齋米 받주  
브라’ 하야시늘
6. 鴛鴦夫人이 말듬 金바리에 힌 밭 7드기 다마 比丘스 알뵈 나사니거늘
7. 比丘ㅣ 술보디 “나는 齋米를 求하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스브라 오  
이다”
8. 그저과 鴛鴦夫人이 도라 드러 王의 술보대
9. 王이 드르시고 즉차히 禮服 니브시고 두라 나샤 比丘스 알뵈 나사가샤  
세 번 절하시고 請하야 宮中에 드르샤 比丘란 노피 안치시고 王은 노  
가비 안주샤 무르샤디 “어드러셔 오시니잇고”
10. 比丘ㅣ 對答호디 “梵摩羅國 林淨寺에 겨신 光有聖인스 弟子ㅣ로니 光  
有聖인이 五百弟子 거느려 겨샤 衆生 教化하시느니 大王스 善心을 드  
르시고 찾물 기를 姝女를 비스바 오라 하실키 오스보이다”
11. 王이 깃그샤 四百八夫人을 다 브르샤 점고 고브나로 여듬 각시를 곱히

샤 比丘를 주어서늘

12. 比丘 | 바다 도라가니
13. 光有聖人이 깃그샤 各各 金鑿子를 맞디샤 摩訶栴檀 우몹므를 ㅎ르 五百디워움 길이더시니
14. 八姝女 | 도흔 根源을 닷가 無上道理를 일우미 머디 아니ㅎ더라

(다) 光有聖人이 王을 請함.

15. 그저그 光有聖人이 勝熱婆羅門比丘드려 무르샤디 “沙羅樹王이 八姝女 보낼 나래 앓가본 쁘디 업더녀”
16. 對答ㅎ수보디 “大王이 앓가본 쁘디 곧 업더시이다”
17. 聖人이 니르샤디 “그러커든 다시 가 大王스 모몰 請ㅎ야 오라 찾믈 기를 維那를 사모리라” ㅎ야시늘
18. 比丘 | 누비 넘고 錫杖 디퍼 竹林國 디나아 沙羅樹王宮의 가 錫杖을 후는대
19. 王이 드르시고 즉자히 鴛鴦夫人을 부르샤 ‘齋米 받주브라’ ㅎ야시늘
20. 鴛鴦夫人이 말들 金바리에 흰 쌀 그드기 다마 比丘의 나사가니
21. 比丘 | 술보디 “나는 齋米를 어드라 온 디 아니라 大王을 보스브라 오이다”
22. 夫人이 도라 드려 술본대
23. 王이 드르시고 깃그샤 耨해 나샤 比丘스 알피 세 번 절ㅎ시고 請ㅎ야 宮中에 드르샤 比丘란 노피 안치시고 王은 ㄴ가비 안주샤 무르샤디 “어드러셔 므숫 일로 오시니잇고”
24. 比丘 | 對答ㅎ수보디 “大王하 엇더 나물 모르시느니잇고 아래 八姝女 맡주바 梵摩羅國 林淨寺로 가스본 내로니 八姝女의 기론 찾믈리 모주랄씨 聖人이 또 나물 브리샤 大王모몰 請ㅎ수바 오나든 찾믈 기를 維那를 삼스보리라 ㅎ실씨 다시 오스보이다”
25. 王이 드르시고 깃거ㅎ시며 忽然히 ㄴ므를 비디듯 홀리거시늘
26. 鴛鴦夫人이 王의 술보디 “엇던 전츠로 우르시느니잇고”
27. 王이 니르샤디 “이 比丘 | 아래 오샤 찾믈 기를 姝女 드려 林淨寺애 가신 증니미시니 이제 또 내 모몰 드려다가 維那를 사모려 ㅎ실씨 들굽

고 깃저 흥가니와 그러나흔디 흥녀고로 헤여 혼딘 내 四百夫人이 前世 因緣으로 나뉘 조차 살어든 오노론 브리고 가릴시 무슨물 슬허 우노이다”

28. 駕齋夫人이 듣좁고 比丘의 닐오되 “내 몸도 좃주바 값 짜힌가 몸 값 짜힌가”
29. 比丘 | 닐오되 “아래 가신 八燦女도 니거시니 브스기 썰브리잇고”
30. 夫人이 닐오되 “그러커든 나도 王 되수바 比丘 좃주바 가리이다”

(라) 왕과 부인이 비구와 함께 길을 떠나, 부인은 종이 됨.

31. 王이 夫人스 말 드르시고 깃저 누소사 나라홀 아수 맛디시고 夫人과 흥샤 比丘 조차샤 西天國을 여회여 竹林國에 가샤 혼 너븐 드르헤 드르시니
32. 나라 저므러 히 디거늘 세 분이 프어리에서 자시고 이튿날 아츰길 나아가십 時節에
33. 駕齋夫人이 울며 比丘의 닐오되 “王과 중님과는 남편 氣韻이실씩 길홀 굶디 아니커시니와 나는 宮中에 이십 제 두셔 거르메서 너무 아니 건다니 오노날 두 나랏 수시에 허뒤 동긴기티 붓고 바리 알폴씩 길홀 묻너리로소이다 이 짜히 어드메잇고”
34. 比丘 | 닐오되 “이 짜히 竹林國이라 혼 나라히이다”
35. 夫人이 또 무로되 “이어긔 갓가비 사룬미 지비 잇느니잇가”
36. 比丘 | 닐오되 “오직 이 브래 子賢長者 | 지비 잇다 들노이다”
37. 夫人이 王의 술보되 “내 모물 종 사문샤 長者 | 지비 두려가샤 내 모물 푸른샤 내 값과 내 일홈과 가져다가 聖人의 받주쇼셔” 흥야놀
38. 王과 比丘와 夫人스 말 드르시고 무슨물 더욱 설비 너기샤 汗물을 비오듯 흘리시고
39. 比丘와 王과 夫人을 뵈샤 長者 | 지비 가샤 “겨집종 사쇼셔” 흥야 브르신대
40. 長者 | 듣고 사롬 브려 ‘보라’ 흥니
41. 닐오되 “門 알피 혼 중과 혼 쇼쾌 고본 거지블 두려 왜서 푸느이다”
42. 長者 | 듣고 세홀 두려 ‘드러오라’ 흥야 들헤 안치습고 묻주보되 “이

짜리 너희 종가”

43. 王과 比丘와 對答호사되 “眞實로 우리 종이니이다”
44. 長者 | 駕駕夫人을 다시 보니 상넷 사르미 양지 아닐씨 夫人의 무로되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45. 對答호되 “眞實로 올흐니이다”
46. 長者 | 무로되 “그러면 비디 언매나 호뇨 ”
47. 夫人이 對答호되 “우리 항것 들히 내 비들 모르시리니 내 모맷 비든 金 二千斤이오 내 비은 아기 빈도 한가지니이다”
48. 長者 | 그 마를 從호야 金 四千斤을 내야 王의와 比丘의와 받즈니라

(마) 왕과 부인이 이별하며 아기의 이름을 정함.

49. 王과 比丘와 그 지비 자시고 이튿날 아츰 세 분이 門 밖기 나샤 여 회실 짜리 몬내 슬허 우러 오래 머므더시니
50. 夫人이 王의 슬보되 “오늘 여회수 後에 썸뵈 아니면 서르 보수뵈 길 히 업건마른 그러나 사르미 善을 닳고든 너나뵈 쓰디 아니라 利益뵈 빈 이를 各各 受호 썸르미니 大王이 宮中에 겨싹 저근 비 골픈 돌 모 르시며 옷 허는 돌 모르더시니 大王하 往生偈를 닳디 마라 외와 돈니 쇼셔 이 偈를 외오시면 골픈 비도 브르며 현 옷도 암굴리이다” 호고 往生偈를 슬보되 “願往生 願往生 願在彌陀會中坐 手執香花 常供養 願往生 願往生 願生極樂 見彌陀 獲蒙摩頂 受記號 願往生 願往生 往生極樂 蓮花生 自它 一時 成佛道”
51. 王이 드르시고 깃그샤 가려 호싹 저리
52. 夫人이 王의 다시 슬보되 “내 비은 아기 아둘옷 나거든 일후를 므스기 라 호고 쥘옷 나거든 일후를 므스기라 호리잇고 아버지 그자 이신 저 리 일후를 一定호사이다”
53. 王이 드르시고 恨므를 흘리며 니르샤되 “나는 드로니 아버지 몬 그존 子息은 어딘 이를 비호디 몬홀씨 아버의 일후를 더러비누다 호누니 나거든 짜해 무더 부료되 호리이다”
54. 夫人이 슬보되 “大王사 말싸미사 올커신마른 내 브데 몬 마재이다 아 드리어든 일후를 孝子라 호고 썸리어든 일후를 孝養이라 호되 엇더

하니잇고”

55. 王이 夫人스 쁘들 어엿비 너기샤 니르샤되 “아드리 나거든 安樂國이라  
하고 쓸웃 나거든 孝養이라 ㅎ쇼셔” 말 다ㅎ시고 슬하디여 우러 여회  
시니
56. 王이 比丘와 ㅎ샤 林淨寺애 가신대
57. 光有聖人이 보시고 그장 깃그샤 즉자히 金鑪子 들흘 받주바 ㅅㅅ물 길이  
습더시니
58. 王이 金鑪子를 나뉘 두 그테 두라 메시고 물 기르며 돈니실 쩌기 원소  
내 往生偈를 자바샤 노티 아니ㅎ야 외오더시다

(바) 부인이 아기를 나아 일곱 살이 됨.

59. 鴛鴦夫人이 長者ㅣ 지비 이셔 아드를 나ㅎ니 양지 端正ㅎ더니
60. 長者ㅣ 보고 닐오되 “네 아드히 나히 열아홉만 ㅎ면 내 지비 아니 이  
싫 相이로다” ㅎ더라
61. 닐굽히어늘 그 아기 어마넉과 슬보되 “내 어마넉 ㅅㅅ에 이실 쩌기 아바  
니미 어되 가시니잇고”
62. 夫人이 닐오되 “長者ㅣ 네 아비라”
63. 그 아기 닐오되 “長者ㅣ 내 아비 아니니 아바니미 어되 가시니잇고”
64. 夫人이 므디듯 울며 모굴 메여 닐오되 “네 아바니미 婆羅門중님과 ㅎ  
샤 梵摩羅國 林淨寺애 光有聖人 겨신 되 가샤 ㅅㅅ한 일 닷기시니라”

(사) 안락국이 아버지를 찾아 처음 길을 떠나나 실패함.

65. 그저기 安樂國이 어마넉과 슬보되 “나를 이제 노ㅎ쇼셔 아바니를 가  
보스바지이다”
66. 夫人이 닐오되 “네 처썸 나거늘 長者ㅣ 닐오되 나히 닐굽여들만 ㅎ면  
내 지비 아니 이실 아히라 ㅎ더니 이제 너를 노하 보내면 내 모미 長  
者ㅣ 怒를 맛나리라”
67. 安樂國이 닐오되 “그므니 도망ㅎ야 썰리 녀러 오리이다”
68. 그저기 夫人이 어엿븐 쁘들 묻 이기여 門 밧과 내야 보내야놀
69. 安樂國이 바릭 逃亡ㅎ야 돈다가 그 깃 ㅅㅅ ㅅㅅ 조을 맛나니

70. 자바 구지조디 “네 엇데 항것 背叛ᄃ야 가는다” ᄃ고 수츄로 두 소닐  
 미야 와 長者 | 손디 날어늘  
 71. 長者 | 怒ᄃ야 손소 安樂國의 讎출 피쫓고 鬻鬻 므를 부르니라

(아) 안락국이 두번째 길을 떠남.

72. 後에 安樂國이 어마넓디 다시 嶽고 사긴 讎츄란 ㅼ리고 逃亡ᄃ야 梵摩  
 羅國으로 가더니  
 73. 竹林國과 梵摩羅國과 두 나랏 스시에 큰 古루미 이쇼디 ㅼ익 업거늘 古  
 술 조차 바니다가 忽然히 싱각ᄃ야 ㄷ뎡동 세 무슬 어더 ㅼ리로 어울워 미  
 야 ㅼ레 ㅼ이오고 그 우회 올라 안자 하늬고 비수보디 “내 眞實스 므수  
 므로 아바님 보습고져 ᄃ거든 부르미 부러 더 古새 건내쇼셔” ᄃ고 습  
 掌ᄃ야 往生偈를 외온대  
 74. 自然히 부르미 부러 ㅼ고새 건내 부치니 古 梵摩羅國 ㅼ히러라  
 75. 그 ㄷ뎡도후란 古새 지혜 미오 林淨寺로 가는 마디에  
 76. 대수히 이쇼디 東風이 불면 그 소리 ‘南無阿彌陀佛’ ᄃ고 南風이 불면  
 ‘攝化衆生阿彌陀佛’ ᄃ고 西風이 불면 ‘渡盡稱念衆生阿彌陀佛’ ᄃ고 北  
 風이 불면 ‘隨意往生阿彌陀佛’ ᄃ더니 安樂國이 들고 古장 깃거 ᄃ더  
 라

(자) 안락국이 아버지를 만남.

77. 그 대습 스시에 林淨寺 | 잇더니 安樂國이 ㄷ를 向ᄃ야 가는 저기 길  
 헤 八姝女를 맞나니  
 78. 往生偈를 부르며 摩訶栴檀 우믈 므를 기러 가거늘  
 79. 安樂國이 무로디 “너희 부르논 偈는 어드러져 나뇨”  
 80. 姝女 | 對答호디 “西天國 沙羅樹大王 鴛鴦夫人스 偈니 우리도 沙羅樹  
 大王스 夫人들히라니 네 勝熱婆羅門比丘 | 우리 王宮의 가샤 우리를  
 ㄷ러 오시고 후에 다시 가샤 沙羅樹大王과 鴛鴦夫人을 ㅼ셔 오시다가  
 夫人이 허튀 알하 거르믈 몬 거르실키 王과 比丘와 竹林國 子賢長者  
 | 지희 ㅼ셔다가 종 사마 ㅼ라시닐 夫人이 여희십 저기 大王의 술 ㅼ  
 샤디 ‘往生偈를 외오시면 골픈 비도 부르며 현 옷도 새 곤ᄃ리니 淨土

- 애 한티 가 나사이다' ㅎ야시놀 王이 비호샤 손지 그치디 아니ㅎ야 외  
오시누니 우리도 이 偈를 좃츠바 외오노소라”
81. 安樂國이 무로티 “沙羅樹大王이 어되 겨시뇨”
82. 對答호티 “길혜 물 기러 오시누니라”
83. 安樂國이 그 말 듣고 길호로 向ㅎ야 가다가 아바니를 맞나스바 두 허  
튀를 안고 우더니
84. 王이 무르샤티 “이 아기 엇더니완티 늘그의 허튀 안고 이리드록 우는  
다”
85. 安樂國이 온 즐 숲고 往生偈를 외온대
86. 王이 그제샤 太子 卽 고돌 아루시고 깊고새 아나 안주샤 오시 주무기  
우르시고 니르샤티 “네 어마니미 날 여회오 시르므로 사니다가 이제  
또 너를 여회오 더욱 우니누니 어셔 도라 니저라”
87. 王과 太子와 슬픈 브들 몬 이귀샤 오래 겨시다가 여회심 저겨
88. 王이 놀애를 부르샤티 “아라 녀리 그촌 이런 이쁜 길혜 ‘놀 보리라’ ㅎ  
야 우리곰 온다 아가 大慈悲 우니는 鶯鶯鳥와 功德修行ㅎ는 이 내 몸  
과 成等正覺 나래샤 반드기 마조 보리여다<sup>27)</sup>”

(차) 안락국이 아버지와 이별하고 돌아오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음.

89. 그저귀 太子ㅣ 울며 저수바 여회습고 도로 그렸 그새 와 딛빅 튼고 往  
生偈를 부르니 부르미 부러 竹林國으로 지불여늘 무티 올라 오는 무  
티에
90. 쇼칠 아히 놀애를 블로티 “安樂國이논 아비를 보라 가니 어미도 몬 보  
아 시르미 더욱 김거다” ㅎ야놀
91. 安樂國이 들고 무로티 “므슴 놀애 부르논다”
92. 對答호티 “子賢長者ㅣ 지의 鶯鶯이라 흥 조이 혼 아드롭 나하놀 그 아  
기 날급 설 머저 ‘아비 보라 니저지라’ ㅎ대 그 어미 어엿비 너겨 노하  
보내여늘 그 長者ㅣ 鶯鶯이를 자바 ‘네 아들 어되 가요’ ㅎ고 環刀를  
메여 텃 時節에 鶯鶯이 놀애를 블로티 ‘고 卽 나 몬 보아 술웃 우니다니

27) 북각본에는 ‘보리여다’로 되어 있으나 동국대 소장 원간본과 홍윤표본에는  
‘보리여다’로 되어 있다.



님하 오<sup>28</sup>나래 녀시라 마로리어다' ㅎ야<sup>28</sup>닐 長者 | 菩提樹 미<sup>28</sup>되 드려다  
가 삼동 내 버혀 더<sup>28</sup>뻬느니라”

(카) 어머니를 염하고 극락에 가 부모를 만남.

93. 안락국이 듣고 菩提樹 미<sup>28</sup>되 가 보니 삼동 내 버혀 더<sup>28</sup>뻬거늘 주<sup>28</sup>서다가  
次第로 니<sup>28</sup>서 노코 짜<sup>28</sup>해 업<sup>28</sup>테여 그<sup>28</sup>올며 술<sup>28</sup>하디여 우<sup>28</sup>니 하<sup>28</sup>닐히 드<sup>28</sup>리치  
더<sup>28</sup>니
94. 오라거늘 니<sup>28</sup>러 西<sup>28</sup>니<sup>28</sup> 向<sup>28</sup>ㅎ야 合<sup>28</sup>掌<sup>28</sup>ㅎ야 눈<sup>28</sup>물 쓰<sup>28</sup>리고 하<sup>28</sup>닐 브<sup>28</sup>르며 偈<sup>28</sup>물  
지<sup>28</sup>서 블<sup>28</sup>로<sup>28</sup>되 “願<sup>28</sup>我…安<sup>28</sup>樂<sup>28</sup>刹”
95. 즉<sup>28</sup>자<sup>28</sup>히 極<sup>28</sup>樂<sup>28</sup>世界<sup>28</sup>로<sup>28</sup>서 四<sup>28</sup>十<sup>28</sup>八<sup>28</sup> 龍<sup>28</sup>船<sup>28</sup>이 眞<sup>28</sup>如<sup>28</sup>大<sup>28</sup>海<sup>28</sup>에 떠<sup>28</sup> 太<sup>28</sup>子<sup>28</sup> 알<sup>28</sup>피<sup>28</sup> 오<sup>28</sup>니
96. 그 龍<sup>28</sup>船<sup>28</sup> 가<sup>28</sup>온<sup>28</sup>딛<sup>28</sup> 굴<sup>28</sup>근 菩<sup>28</sup>薩<sup>28</sup>들<sup>28</sup>히 太<sup>28</sup>子<sup>28</sup>드<sup>28</sup>려<sup>28</sup> 날<sup>28</sup>오<sup>28</sup>되 “네 父<sup>28</sup>母<sup>28</sup>는 불<sup>28</sup>써 西<sup>28</sup>方<sup>28</sup>  
애 가<sup>28</sup>샤 부<sup>28</sup>데 드<sup>28</sup>의<sup>28</sup>엿<sup>28</sup>거<sup>28</sup>시<sup>28</sup>늘 네 일 몰<sup>28</sup>라 이<sup>28</sup>실<sup>28</sup>씨 ‘길 자<sup>28</sup>브<sup>28</sup>라 오<sup>28</sup>라’ ㅎ야  
시<sup>28</sup>닐”<sup>28)</sup>
97. 太<sup>28</sup>子<sup>28</sup> | 그 말<sup>28</sup> 들<sup>28</sup>고 깃<sup>28</sup>거 獅<sup>28</sup>子<sup>28</sup>座<sup>28</sup>에 올<sup>28</sup>아 虛<sup>28</sup>空<sup>28</sup>올<sup>28</sup> 타 極<sup>28</sup>樂<sup>28</sup>世界<sup>28</sup>로 가<sup>28</sup>니라

(타) 결미: 각 등장인물의 실제 신분.

98. 光<sup>28</sup>有<sup>28</sup>聖<sup>28</sup>人<sup>28</sup>은 이<sup>28</sup>젿 釋<sup>28</sup>迦<sup>28</sup>牟<sup>28</sup>尼<sup>28</sup>佛<sup>28</sup>이<sup>28</sup>시<sup>28</sup>고 沙<sup>28</sup>羅<sup>28</sup>樹<sup>28</sup>大<sup>28</sup>王<sup>28</sup>은 이<sup>28</sup>젿 阿<sup>28</sup>彌<sup>28</sup>陀<sup>28</sup>佛<sup>28</sup>이<sup>28</sup>시<sup>28</sup>  
고 駕<sup>28</sup>輦<sup>28</sup>夫<sup>28</sup>人<sup>28</sup>은 이<sup>28</sup>젿 觀<sup>28</sup>世<sup>28</sup>音<sup>28</sup>菩<sup>28</sup>薩<sup>28</sup>이<sup>28</sup>시<sup>28</sup>고 安<sup>28</sup>樂<sup>28</sup>國<sup>28</sup>은 이<sup>28</sup>젿 大<sup>28</sup>勢<sup>28</sup>至<sup>28</sup>菩<sup>28</sup>薩<sup>28</sup>이<sup>28</sup>  
시<sup>28</sup>고 勝<sup>28</sup>熱<sup>28</sup>婆<sup>28</sup>羅<sup>28</sup>門<sup>28</sup>은 이<sup>28</sup>젿 文<sup>28</sup>殊<sup>28</sup> | 시<sup>28</sup>고 八<sup>28</sup>娑<sup>28</sup>女<sup>28</sup>는 이<sup>28</sup>젿 八<sup>28</sup>大<sup>28</sup>菩<sup>28</sup>薩<sup>28</sup>이<sup>28</sup>시<sup>28</sup>고  
五<sup>28</sup>百<sup>28</sup>弟<sup>28</sup>子<sup>28</sup>는 이<sup>28</sup>젿 五<sup>28</sup>百<sup>28</sup>羅<sup>28</sup>漢<sup>28</sup>이<sup>28</sup>시<sup>28</sup>니라 子<sup>28</sup>賢<sup>28</sup>長<sup>28</sup>者<sup>28</sup>는 無<sup>28</sup>間<sup>28</sup>地<sup>28</sup>獄<sup>28</sup>에 드<sup>28</sup>리<sup>28</sup> 있<sup>28</sup>  
느니라

28) 보살들의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화제로 전환을 하고 있어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다.